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

김 종 범 한 종 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집단의 하위 집단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그 특성을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 등을 중심으로 보았다. 먼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정도에 따라 인터넷 중독사용 집단을 결정하였고 그 집단 원을 각 영역의 사용 정도에 따라 주 사용 영역을 결정하였다. 주 사용 영역에 따라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과 비 대인관계 위주 중독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하위 집단과 중독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집단, 이 세 집단의 심리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울, 공격성, 외로움, 자존감 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이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비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 비 중독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인터넷 중독집단은 비 중독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였고 공격성은 더 낮았으며 자존감 역시 낮게 나타났다. 나이에 있어서는 대인관계 중독 집단이 비 대인관계 중독 집단과 비 중독 집단에 비해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독의 하위 집단 중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이 비 대인관계 위주 집단 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위주의 중독 집단에 있어서의 치료적인 접근은 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부터 접근해 가야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의 하위 집단, 인터넷 대인관계중독 집단, 외로움

[†] 교신저자 : 한 종 철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FAX : (02) 365-4354 / E-mail : jchan@psylab.yonsei.ac.kr

1. 인터넷 중독 장애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는 Goldberg(1996)에 의해 처음 제안된 용어로,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일컫는다.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 이외에도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e), 웹바홀리즘(Webaholism), 가상 중독(Virtual Addiction), 병적인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 아직 정립된 용어가 없는 형편이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Young(1996)에 의해서였다. Young(1996)은 APA의 연례회의에서 인터넷 중독증의 개념과 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발표를 통해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행동적, 기능적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이들 중독자 중 82%는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중독 현상이 나타났다고 응답했고 인터넷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Young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 중독증을 독립적인 정신병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Young, 1996).

또한 Greenfield(1999)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99년 8월 미국 심리학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Greenfield가 미국 ABC 방송사와 함께 온라인으로 조사한 연구결과(ABCnews, 1999)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6%가 인터넷 중독의 준거에 부합되었다.

2.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Young

& Rogers, 1997; Greenfield, 1999; Katz & Aspden, 1997; 윤재희, 1998. etc)들은 인터넷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고 이런 사회적 관계 욕구의 충족을 통해 중독에 관련된 기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Young, 1999).

오늘날의 인터넷은 급격히 발전하여가고 있고 그로 인해 사용하는 영역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미디어 리서치, 1999) 성영신(1999)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동을 크게 정보 지향적 행동, 인간관계 지향적 행동, 그리고 활동 지향적 행동으로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매체로 인터넷을 보았다. Griffiths(1996)는 인터넷상의 다양한 활동의 구조적인 특징이 강화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특징들이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과도한 사용을 이끌어 낸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이를 통한 욕구 충족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 인터넷에 중독되는 영역도 다양한 욕구 충족 기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하위 형태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1) Young에 의한 인터넷 중독 분류

Young(1998b)은 그의 사이트에서 인터넷 중독을 5가지 중독의 하위 집단을 나누어 기술하였다. 각 집단에 있어서 인터넷에 몰입되는 기제가 각 집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나눈 하위집단은 사이버섹스 중독, 가상관계 중독, 충동적 인터넷 사용(도박, 쇼핑), 정보 과부하, 컴퓨터 중독의 5가지였다. 특히 충동적 인터넷 사용 중독 집단, 사이버 섹스 중독 집단은 예전 전자우편, 채팅 등에 몰입된 가상 관계 중독과

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몰입되는 기계 역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2) Suler에 의한 인터넷 하위 집단의 분류

Suler(1996)는 모든 가상 현실에 대한 중독을 두 가지 범주 즉 대인관계 위주 형태와 비 대인관계 위주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 위주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사소통하고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몰입하고 그 외의 컴퓨터의 사용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대다수의 인터넷 중독자들은 대인관계 위주 형태를 지닐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들은 채팅, 전자우편에 중독되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다른 사회적인 자극을 찾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사회적 인터넷 중독의 저변에 흐르는 욕구는 대인 관계적(인정받고, 소속되어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랑 받음 등)이라고 보았다.

비 대인관계 위주 형태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게임, 일, 정보 수집 또는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일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들의 대인관계의 연결을 위해서 가상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비 대인관계 위주 형태의 사람들의 경우 채팅 방에서의 혼란스러운 대인관계를 피하고자 한다고 보았으며 Suler(1996)는 통제와 예측가능성 충족이 이들이 인터넷에서 얻는 주요한 욕구 만족이라고 보았다.

3. 인터넷 중독의 하위 집단과 우울, 자존감, 외로움, 공격성

인터넷 중독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우울(Young & Rogers, 1997; Gunn,

1998; Krout, et al., 1988; 윤재희, 1998), 자존감(Young, 1999; 송원영, 1998), 외로움(Katz & Aspen, 1997; Krout, et al., 1988; 박영숙, 1999; 윤재희, 1998), 충동성(윤재희, 1998)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많은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자들의 이런 특성(Young, 1999; King, 1996; 이봉건, 1999)과 함께 공격성(Suler, 1998; Young, 1998; King, 1996)에 관해 연구자들이 언급하여왔고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언급하여왔다. 하지만 위의 심리적 특성들의 연구는 인터넷 중독을 특성이 같은 한 집단으로 간주한 채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여러 다른 하위 집단(sub-group)으로 구성된 인터넷 중독 집단을 고려치 않았다. 즉 이런 하위 집단(sub-group)에 따라서 이런 심리적 특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심리적 특성이 중독의 하위 집단(sub-group),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과 비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보고자 하였다.

1) 인터넷 중독 집단과 우울

Young과 Rogers(1997)는 인터넷 중독 집단의 정신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우울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들이 경도에서 중등도의 우울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고, Gunn(1998) 역시 BDI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 경도에서 중등도의 우울을 보임을 재확인하였다. 우울함과 내성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Krout 등(1998)은 256명의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 수준이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

자의 54%가 우울증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34%가 불안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윤재희 연구(1998)에서도 인터넷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인터넷 중독 집단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Young & Rogers, 1997)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우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인터넷 중독집단이 중등도의 우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이런 우울이 인터넷의 사용영역에 따른 인터넷의 하위 중독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의 연구에서의 중독자의 인터넷 사용 영역은 현재와 같이 발달되어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대인관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Krout et al., 1998; Young, 1996; Young & Rogers, 1997; Illinois Institute for addiction recovery, 1998). 위의 연구의 결과들이 대인관계에 중독 되는 집단의 특성과 흡사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비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의 우울에 대해서는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2) 인터넷 중독 집단과 자존감

인터넷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공간으로 보아왔다(한규석, 1999). 이는 인터넷상의 사회적 관계는 신체적인 정보가 배제된 채로 이루어지고 또한 익명성을 유지(Greenfield, 1999)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고(Young, 1999), 이것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기에(이봉건, 1999) 이들에게 인터넷은 중독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인터넷 중독자들을 위한 임상센터를 운영하는 Young(1999)은 그의 임상 경험에서 인터넷 중독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송원영 연구(1998)에서는 현실생활과 가상공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인터넷의 사용시간과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과는 현실에서의 개인적 효능감이 인터넷의 중독적인 사용에 부적인 영향을 예측하였으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집단에 있어서의 자존감은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특성(송원영, 1998)으로 보고 있다. 현실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집단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대인관계(이봉건, 1999)에 집착하려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위주의 집단이 비 대인관계를 위주로 사용하는 중독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가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인터넷 중독 집단과 외로움

인터넷의 사용이 외로움을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몇몇 연구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만 매달리게 되고 익명의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만을 함으로써 인터넷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할 것이고, 진정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Stoll, 1995; Turkle, 1996).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은 지리적인 제약과 병이나 스케줄로 인해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인터넷이 좀더 폭넓고 나은 사회적 관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Katz & Aspden, 1997; Rheingold, 1993). Katz와 Aspden(1997)의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자

와 비 사용자의 사회적 참여를 비교하였는데, 인터넷이 사회적 관계와 친구관계를 좀더 풍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Krout 등(1998)의 종단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들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인터넷의 사용이 많은 사람의 경우 외로움에 있어서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인터넷의 사용이 시간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활동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현실관계의 끈끈한 관계를 가상공간에서의 느슨한(loose) 관계가 대신하면서 외로움이나 불만족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영숙(1999)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외현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중독여부가 소외 정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였다.

Krout 등(1998)은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전자 우편, MUDs, 채팅 등의 대인관계 위주의 사용과 비 대인관계 위주의 사용에서의 사회적인 접촉의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였다. 대인관계 위주의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적은 사회적 개입으로 적은 외로움을 예상하였고 웹 위주의 사용자에게는 많은 외로움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대인관계 위주의 사용만을 주로 사용하였고 이들에게 외로움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비 대인관계 위주의 사용자의 외로움의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속적인 인간관계보다는 모임의 이름이나 그 당시의 관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관심이나 교류 상대자가 처한 상태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 필요,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다(성영신, 1999). 하지만 대인관계를 위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친밀감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원하는 반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속

적인 관계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성영신, 1999). 이것은 이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친밀감과 다르며 깊은 대인관계를 원하는 이 집단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들은 익명의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만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진정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다.(Stoll, 1995; Turkle, 1996).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친화욕구를 충족하려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활동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4) 인터넷 중독 집단과 공격성

지금까지의 연구는 인터넷 중독을 충동 조절에 있어서의 문제로 보아 왔고(Young, 1998; Greenfield, 1999) 윤재희(1998)의 연구에서는 이 중독집단과 충동성(윤재희, 1998)의 상관을 보고자 하였다. 이런 충동성과 관련해서 새롭게 인터넷 중독 집단에 있어서의 공격성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King, 1996)되고 있다. Suler(1998)는 인터넷을 다양한 압력과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출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로 인해 내면의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Young(1998)은 인터넷의 게임 영역을 언급하면서 게임의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인터넷에서만 아니라 현실에서 공격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게임이 그들에게 살인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았다. 국내에 있어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조선일보, 1997) 실제로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사례(일간스포츠, 2001)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공격성은 최근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실에서 공격성이 낮고 내면에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 공격성을 발현하지 못하기에 공격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에 접근하고 중독 된다고 볼 수 있다(suler, 1998). 그러므로 인터넷의 중독적인 사용은 현실에서의 공격성과 상관이 높을 것이며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 문제 및 가설

1. 연구 문제

인터넷상에는 다양한 자극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용 영역이 있다. 게다가 새로운 영역이 날로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사람들 역시 다양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인터넷에 대해서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만 강조하여 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욕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충족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양한 매체인 인터넷에 몰입하고 중독되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가정하고 접근하였다. 단지 사회적 교류의 또 하나의 통로(Katz & Aspden, 1997)로서 인터넷을 생각하고 접근하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하나의 도피처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 몰입해 가는 사람들은 도피처보다는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의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사회적 친화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에서 좀더 다양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에서 인터넷

을 사용하는 영역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들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각 집단에 있어서 자존감, 외로움, 우울, 공격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각 집단의 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가 설

1. 각 인터넷 중독의 하위 집단의 특성 차이
- 1-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우울 정도는 다를 것이다.
- 1-2.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자존감 정도는 다를 것이다.
- 1-3.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외로움 정도는 다를 것이다.
- 1-4.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공격성 정도는 다를 것이다.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인터넷 서핑(internet surfing)을 하던 중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에 찾아와서 설문에 응한 사람들로 남자 633명, 여자 384명, 총 1,021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13세부터 35세까지 참여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22.9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대재, 대졸이 합쳐서 69.7%로 다수를 차지했다.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 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Rog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이영자(1993)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79이고 내적 합치도는 시기 1에서는 .80이었고 시기 2에서는 .83이었다. 본 연구의 알파계수는 .78이었다.

2) UCLA 외로움 척도

Russell 등(1980)이 제작한 UCLA 외로움척도(UCLA Loneliness Scale)를 김교현 등(1989)이 번안한 한국판 UCLA 외로움척도를 사용하였다. 외로움척도의 신뢰도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Russell 등(1980)이 .84였고, 김교현 등(1989)이 .84, 그리고 구본용(1990,1991)은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알파계수는 .89이었다.

3) Beck의 우울증 척도

Beck(1967)이 개발한 문항을 이영호(1993)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에서 Beck(1961)의 우울증 측정표와 신뢰도 및 양분상관계수는 .65에서 .67까지이었고 이영호(1993)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98, 반분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본 연구의 알파계수는 .88이었다.

4) 공격성 척도

Buss & Durkee(1957)가 제작한 것을 노안녕(1994)이 번안한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노안녕(1994)연구에서 재검사 신뢰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알파계수는 .87이었다.

5) 인터넷 중독적 사용 척도

인터넷 중독적 사용 척도(Young, 1999a)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Young이 개발한

2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로 각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 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 부진, 가정예의 소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상의 문제, 정서상 변화 등을 보여준다. 윤재희 연구(1998)에서 이 척도가 사용되었고, 요인분석 결과, Cronbach α 는 .7924 이다. 본 연구의 알파계수는 .89이었다.

6)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터넷 주 사용영역 및 사용시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상공간 이용시간, 주 사용영역, 주당 사용 시간 등을 질문하였다.

3. 질 차

본 연구에서는 Young(1996), Gunn(1998), 송원영(1998)등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온라인 조사를 사용하였다. 먼저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척도에 따라 총 설문 응답자 중에서 인터넷 중독적 사용자(40점 이상)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중독적 사용 집단이 어떤 영역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사용 정도에 있어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영역(전자우편, 채팅, 동호회) 사용이 그 외의 영역 사용보다는 우세할 경우, 대인관계 위주의 중독적 사용자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의 영역(정보검색, 뉴스, 게임, 경매, 쇼핑, 재테크, 도박 등) 사용이 대인관계 영역보다 우세할 경우, 비 대인관계 위주의 사용자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집단의 구분은 Suler(1998)의 인터넷 중독 분류에 따랐다. 이에 비교를 위해 중독 점수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집단을 비 중독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결 과

1. 인터넷 중독의 하위 집단과 비 중독 집단 간의 비교

각 집단에서의 나이, 사용시간, 자존감, 공격성, 우울, 외로움 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나이에 있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_{2,318}=23.33, p<.001$). 각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 검증(Scheffe) 결과,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이 비 중독 집단($p<.01$)과 비 대인관계 위주 중독집단 ($p<.01$)보다 나이가 유의미하게 적었다.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F_{2,311}=3.56, p<.05$). 사후 검증(Scheffe)결과, 비중독집단과 대인관계중독집단이 비대인관계중독집단(평균차=4.51, $p<.01$)보

표 1. 인터넷 중독의 하위 집단 과 비중독 집단간 각 특성의 차이 검증

구 분	집 단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F
나이	관계 위주 중독집단	74	19.51 _a	3.44	23.33 ^{***}
	비관계 위주 중독집단	120	22.73 _b	4.96	
	비 중독 집단	126	24.10 _b	4.82	
사용시간	관계 위주 중독집단	71	13.34 _a	10.26	3.56 ^{**}
	비관계 위주 중독집단	116	17.18 _b	16.70	
	비 중독 집단	126	12.67 _a	12.16	
자존감	관계 위주 중독집단	74	25.82 _a	4.62	27.99 ^{***}
	비관계 위주 집단	120	26.44 _a	4.52	
	비 중독 집단	126	30.04 _b	4.45	
공격성	관계 위주 중독집단	74	106.05 _a	11.60	25.14 ^{***}
	비관계 위주 중독집단	120	109.16 _a	11.11	
	비 중독 집단	126	116.77 _b	11.14	
외로움	관계 위주 중독집단	74	48.27 _a	9.04	34.93 ^{***}
	비관계 위주 중독집단	120	43.80 _b	10.13	
	비 중독 집단	126	36.36 _c	10.913	
우울	관계 위주 중독집단	74	38.33 _a	9.05	41.99 ^{***}
	비관계 위주 중독집단	120	36.38 _a	9.37	
	비 중독 집단	126	28.53 _b	6.62	

* p<.05 **p<.01 ***p<.001

같은 영문자는 .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인터넷을 더 적게 사용하였다.

자존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_{2,318}=27.99, p<.01$), 사후검증 결과(Scheffe), 비 중독집단이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과 비대인관계 중독집단보다 자존감이 높았다($p<.01$).

공격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_{2,318}=25.14, p<.01$). 사후검증(Scheffe) 결과, 공격성에 있어서도 비 중독집단이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과 비대인관계 중독집단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p<.01$).

외로움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_{2,318}=34.93, p<.01$). 사후검증(Scheffe) 결과,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이 비 대인관계 중독집단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느꼈으며 ($p<.05$), 비 대인관계 중독집단이 비 중독집단에 비해 더 많이 외로움을 느꼈다($p<.01$).

우울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F_{2,318}=41.99, p<.01$). 사후검증(Scheffe) 결과 비 중독집단이 가장 우울을 적게 느꼈으며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과 비 대인관계 중독집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우울의 경우에서 중독의 두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높은 우울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어졌다(Young & Rogers, 1997; Krout et al, 1998; Gunn, 1998; 윤재희, 1998; Young, 1999b). 하지만 우울에 있어서 하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밝혀 내지 못했다.

Young과 Rogers(1997)는 우울이 인터넷의 대인관계 중독에 이르게 하는 한 요인으로 보았다. 즉 우울한 사람이 인터넷 대인관계 중독에 더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중독 집단이 비 대인관계 중독 집단보다 우울이 더 높을 것을 예상하였으나, 대인관계 중독 집단과 비 대인관계 중독 집단 간에 우울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존감에 있어서도 비 중독 집단이 중독의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대인관계 중독 집단과 비 대인관계 중독 집단의 경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현실생활에서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좋지 않은 자아상이 자신의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도 되는 인터넷의 사용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Young, 1999). 하지만 대인관계 중독과 비 대인관계 중독 집단의 자존감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런 낮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하게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외로움에 있어서 중독의 두 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외로움은 높게 나타났고, 중독의 두 집단에 있어서는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이 비 대인관계 중독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중독 집단이 비 중독 집단에 비해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의 중독적인 사용이 외로움과 상관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Krout 등(1998)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연구에서 인터넷과 다 사용자의 외로움이 증가된 것과 같은 결과이다. Krout 등(1998)은 이를 현실관계의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가상공간에서의 느슨한(loose) 대인 관계가 대신하면서 외로움이나 불만족을 유발

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가상 공간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현실상의 친밀한 대상과 관계 맺는 시간 및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 역시 떨어지게 되면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의 사용이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그 외에 또한 현실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실에서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대인관계를 물리적인 조건이나 심리적인 이유로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그 편리성으로 인해 유혹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가상의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시에 모든 대인관계를 거부하고 현실로부터 철회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더욱더 가상 공간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중독 집단 내에서도 이들의 외로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의 경우, 비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외로움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중독적 사용은 이들이 인터넷의 대인관계를 주로, 그리고 과다하게 이용(Suler, 1998)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터넷의 사용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의 대인관계를 많이 추구하고 있거나, 인터넷상의 대인관계를 과다하게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외로움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의 대인관계의 편리성과 즉시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의 대인관계를 많이 추구한다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리적 조건이나 심리적 이유로 현실에서의 대인관계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기에 인터넷상에서의 대인관계에 눈을 들

리게 되고 이는 이들에게 좀더 편한 인터넷상의 대인관계에 집중하고 중독 되게 만들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상의 대인관계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상관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대인관계의 증가는 현실에서의 관계 유지 능력의 상실을 가져오고 결국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인관계를 포기하게끔 한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대인관계는 현실 관계에서의 대인관계와는 달리 구속력이 없으며 개방적이지 않은 필요 충족을 위한 피상적인 관계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서로에게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관계 자체를 포기하고 또 다른 관계를 찾기(성영신, 1999)에서 서로에게 어느 정도 사회적 기술과 인내를 요구하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대인관계로의 발전이 어렵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대인관계 추구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Krout, 1998). 두 중독 집단에서의 차이는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그 사용에 있어서 그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존재하며 이 집단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에의 접근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성에 있어서 중독의 두 집단이 비 중독 집단에 비해 낮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는 인터넷이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현실 상에서 자신의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출할 줄 모르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공격적 충동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Suler, 1998)으로 이용될 수 있다. Greenfield(1999)는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요인으로 이런 탈 억제들었다. 이는 공격적 충동의 적절한 표출을 통한 결과로서의 낮은 공격성과 공격성이 낮은

사람들의 더 높은 인터넷 중독적 사용,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나이에 의한 차이도 대인관계 중독집단과 그 외의 두 집단간에 나타나는데 대인관계 중독 집단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이가 적었다. 이것을 볼 때 인터넷의 대인관계 중독적 사용 경향성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욕구는 높고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들의 학교와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왔던 인터넷 중독집단 내에 하위 집단,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 비 대인관계 중독 집단이 존재하고 그 집단 간에는 외로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그 심리적 특성이 다른 하위 집단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치료에 있어서도 그 집단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인터넷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과 비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을 구분할 필요성과 대인관계 위주 중독 집단에 있어서 좀더 이들의 외로움과 친밀감 형성에 집중해서 치료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중독적 사용 집단이 비 중독적 집단과 비 대인관계 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나이가 어리게 나왔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터넷의 사용이 대인관계 중심으로 그리고 중독적으로 이용함을 보여준다. 대인관계 욕구가 높고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터

넷 사용이 대인관계 위주의 중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들의 대인관계 욕구의 충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용, 김재환, 이수원, 장성수, 류완영(1990). 고독의 심리적 속성과 대처방식. *대학생활연구(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8, 133-154.
- 구본용(1991). *고독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성*.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교헌, 김지환(1989). 한국판 UCLA 고독척도. *학생생활연구(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6, 13-30.
- 노안녕(1983). 비행 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미디어 리서치(1999). 인터넷 통계. | Love PC 10월호. 430-433.
- 박영숙(1999).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소외현상에 관한 연구-현실세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 성영신(1999). 컴퓨터 사용의 심리적 욕구와 충족과정. 사이버 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석사학위 청구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박사 학위 논문. 서울 여자 대학교.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BC News(1999). Log on, tune in, drop out. World Wide Web. <http://www.ABCnews.go.com/sections/living/DailyNews/netaddiction032699.html>
-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uss, A. H. & Durkee, A.(196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43-349.
- David N. Greenfield(199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pulsive internet use: A preliminary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World Wide Web. <http://www.cmhc.com/mlists/research.html>
- Griffiths, M.(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III. Some comments o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80, 81-82.
- Gunn, D. A.(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UK. World Wide Web. URL : //147. 197. 152. 160/netquest /ALL-VER6. html.
- Illinois Institute for addiction recovery(1998). Studies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URL: WWW.addictionrecov.org/wrkguide_www.htm.
- Katz, J. L., & Aspden, P.(1997). A nation of stranger? *Communications of the ACM*, 40(12), 81-86
- King, S. A.(1996). Is the internet addictive, or are addicts using the internet? URL: rdz.stjohns.edu/~storm/ida.html.
- Krout, R., Patterson, Michael., Lundmark, V., Kiesler, Sara.,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 9 1017-103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 D., Peplan, L.A., & Cutrona, C. E.(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Suler, J.(1996). An interview by Morris Jones from internet Australasia magazine. URL: www.rider.edu/users/suler/psycyber/psycyber.html
- Suler, J.(1998). Psychology of Cyberspace. URL: www.rider.edu/users/suler/psycyber/psycyber.html
-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Young, K. S.(1998a). What is cybersexual addiction. World Wide Web. [Http://www.netaddiction.com](http://www.netaddiction.com)
- Young, K. S.(1998b). What is internet addiction? World Wide Web. [Http://www.netaddiction.com](http://www.netaddiction.com)
- Young, K. S.(1999a). *Caught in the Net*. NewYork, NY: John Wiley& Sons, Inc.
- Young, K. S.(1999b). Internet addiction: sym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Jackson(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Vol. 17; pp. XXX)*.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K. S. & Rodgers, R.(1997). The Relaia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25-28.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s Sub-Goups

Jong-bum Kim Jong-chul Han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ub-group of internet addict. The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is study were self-esteem, aggression, loneliness, depression.

First, internet addictive group was selected by the scale of internet addictive use. The internet addictive group were divided into personal relation addictive group and non-personal addictive group by their main applications of internet. In order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between personal relation addictive group and non-personal relation addictive group, the difference of self-esteem, aggression, loneliness, depression between those group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personal relation addictive group feels more loneliness than non-personal relation addictive group does.

These findings showed that when internet addicts were treated, specially, the loneliness of personal relation addictive group must be concerned with.

Key Words : sub group of the internet addict, personal relationship addictive group of internet addict, loneliness